◈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 김창인 편집인 : 우기전 편집국장 : 조선근

(제29대) (제10대) (제38대)

장로 · 안수집사 장립 및 권사 취임

오는 11월 13일(수) 오후 7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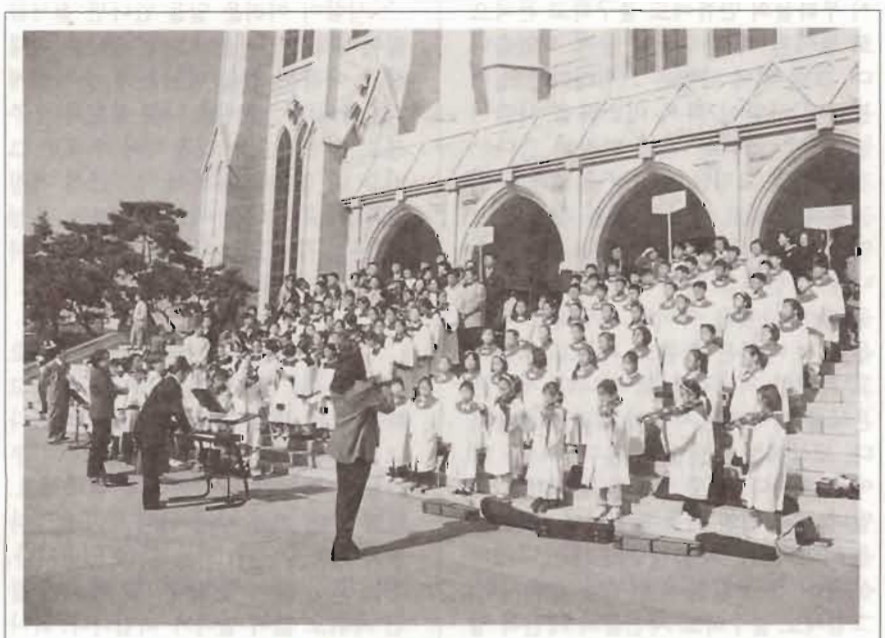
장로 피택자들은 노회 고시 모두 통과해

교회는 오는 11월 13일(수) 오후 7시 수요2부예배시에 제29대 장로 · 제10대 안수집사 장립 및 제38대 권사 취임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이번에 장립을 받게 될 장로는 10명, 안수집사는 20명, 취임하게 될 권사는 66명으로 이들은 지난 5월 19일 공동의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피택되었고 6개월간의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

장로는 지난 10월 7일(월) 노회에서 실시한 고시에 이미 합격을 하였고, 안수집사와 권사는 오는 11월 2일 당회에서 실시하는 고시와 면접을 치루어서 이에 통과하여야 한다.

안수집사 및 권사 피택자들에 대한 당회 고시 및 면접은 오는 11월 2일(토) 오후 2시 30분 교육관 301호와 307호에서 실시된다.



오늘 초등부 초청전도집회

교회학교 초등부에서는 오늘 부모가 우리교회에 출석하지만 자녀가 교회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 장기 결석자, 전도대상자 등을 위한 초청전도집회를 실시한다.

부모들의 2, 3부예배 시간에 맞추어 오전 9시와 오전 11시에 실시하게 되고 특히 오전 11시에 나오는 어린이들은 계속 오전 11시 교회학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해당 어린이를 둔 학부모들은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어린이들을 교회학교에 보내는 결정들을 이번 기회에 하면 여러 모로 유익할 것이다.

장소는, 오전 9시 집회는 각 교회학교 예배실(주보 참조), 오전 11시 집회는 교육관 314호이다.

예비신랑신부교육부

부부 교양세미나

교회학교 예비신랑신부교육부(부장 송환창 장로)에서 신혼 부부와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 부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부 교양세미나를 개최한다.

- 일시 : 11월 2일(토) 오후 6시
- 장소 : 만나홀
- 제목 : 부부 대화
- 강사 : 안덕자 교수 (한국심리연구소)
- 대상 : 예신부 수료자 및 학생 전원

96-11기 수강생 모집

한편 예신부에서는 96-11기 수강생을 모집하여 현재 등록 접수 중에 있다. 역시 예비 신랑 신부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 교육기간 : 11월 3일(주일) ~ 12월 29일(주일)
- 교육시간 : 매주일 오전 11 ~ 오후 1시
- 교육장소 : 교육관 208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헌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10월 27일(주일) 오전 8시 ~ 오후 3시
- 본당 앞 광장에서

우리교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헌혈을 실시하고 있다. 인공 장기까지도 만들어 내고 있는 현대 과학 기술로도 혈액만큼은 못 만들어 내고 있고, 혈액 보관 유효기간이 35일을 못 넘기기에 매일의 필요량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헌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장기 기증, 안구 기증 등으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모두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헌혈은 모두가 가능하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헌혈에 동참하자.

· 헌혈을 할 수 있는 기준

- 16세 이상 65세 이하
- 남 50kg 이상, 여 45kg 이상
- 혈압 정상, 맥박 정상인 사람
- 법정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 헌혈을 해도 건강에 이상 없는가

우리 몸에는 체중의 약 8%의 혈액이 순환하고 있다. 그런데 체중 50~60kg의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혈액 중 10% 정도는 만일의 출혈에 대비한 여분의 혈액인데 헌혈은 이 여분의 혈액 중에 하는 것이기에 헌혈은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헌혈을 하지 않아도 우리 몸 속에 있는 혈액의 1% 정도는 매일 땀이나 신진대사 작용이 반복되기에 헌혈을 하게 되면 조혈 기능이 활발해지고 대체 혈류가 촉진되어 평상시보다 빠른 속도로 신선한 혈액이 생산, 보충되므로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국내 · 외 의학계의 연구보고도 있다.

· 헌혈은 곧 자신의 건강진단이다

— 혈압 측정 및 건강 진단 / 헌혈자의 건강 상태와 병력에 대해 두루 살펴서 헌혈 여부를 판단하며 혈압도 측정한다.

— B형 · C형 간염 및 AIDS, 매독 항체검사 / 헌혈 혈액은 헌혈자의 건강과 수혈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상기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여부를 가려내고 있다.

— 간 기능 검사 / 헌혈자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실시하며 6가지 항목(AST, ALT, 총단백, 알부민, A/G비, 콜레스테롤; 요소질소)으로 간기능과 저질대사의 이상 유무를 진단해 준다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약한 자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1)

(시편 35:1-28)

시편 35편은 사무엘상 23, 24장에 나타나는 사건을 배경으로 다윗 장군이 지은 시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몸바쳐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건져낸 구국 공신 다윗 장군을 시기하여 역적으로 몰아냅니다. 그래서 다윗 장군은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견디다 못해서 모압이라는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에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상 섬기는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말했습니다. 다윗은 다시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돌아와 헤렛 수풀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그일라라는 성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농사지은 곡식을 몽땅 타작해 간다는 것을 알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치고 빼앗긴 것을 찾아서 그일라 사람들에게 주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의 고발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그일라로 내려옵니다. 다윗은 외롭고 괴롭고 억울하고 가난한 피난길을 또 갑니다. 세상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세상에는 까닭없는 원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윗 장군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장인인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을 따라다니는 부하들 가운데는 다윗의 신세를 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개인적 영달을 위해서 다윗을 배신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다윗 장군은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응답을 받아 기쁨이 생기므로 하나님 앞에 찬미합니다. 이렇게 세 번 기도하고, 세 번 찬미를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 다윗의 기도가 어떠합니까(35:1-10)

다윗 장군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외롭고 그 처지는 매우 위태롭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대방과 천 번 싸우면 천 번 이길 것을 알면서도 직접 싸울 마음은 꿈에도 없고 바보처럼 도망만 다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처치해 주세요." 하나님께 신령한 전쟁을 맡깁니다.

(1) 나를 보호하여 주세요

세상에는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도 많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성도는 싸울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방패는 온 몸을 보호하고 손방패는 머리와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결국 큰 방패도 손 방패도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보호한다고 별 계획을 다 세워도, 보호하는 기술이 능하다 해도 인간의 계획과 기술을 가지고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환난을 당했는데 내가 나를 보호하기보다 모압의 임금이 나를 보호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보호하여 주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길을 막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을 빼서 길을 막으시면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싸우다가 힘이 세고 못된 아이가 때리려고 따라올 때에 아이의 아버지가 막아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수를 막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하여 구원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질서를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다윗 장군은 위태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순서있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세요. 원수의 오는 길을 막아 주세요. 그리고 내 영혼을 향하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하는 음성을 들려 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순서있는 기도입니다.

(2) 원수의 계획이 실패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따라 오는 저 무리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따라오는 저 무리들로 하여금 망신당하게 해주세요.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여 주세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겨는 값이 없습니다. 겨는 태산 같이 쌓였다가도 바람이 불면 자취도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임할 때에 겨가 그 앞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다윗은 따라오는 무리가 수없이 많지만 바람 앞에 겨와 같이 자취도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무리들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지만 중심이 없고 가치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가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심판의 바람으로 처치해 주세요."

다리오 왕은 많은 방백들을 임명하여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을 포함하여 세 사람을 총리로 택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들로 하여금 나라의 모든 일을 살피고 계획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총리들과 방백보다 다니엘이 너무 뛰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때에 세 사람 중 두 사람과 그외 무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죽여 버리려고 합니다. 악한 부하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대왕에게 갔습니다. "대왕이여, 우리가 의논하기를 대왕처럼 위대한 임금이 인류 역사에 없는 것을 알고 한달 동안은 대왕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사자굴에 넣어 사자밥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재가 났으니 이제는 임금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임금님이 결재한 사실을 알았지만 '죽으면 죽었지 내 백성의 후손만큼은 잘 살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합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조상이 범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죽지 않고 남은 백성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 짓는 날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지만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 터를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세 번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본 악한 무리들이 대왕에게로 가서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마음이 없었지만 별 수 없는 일입니다. 악한 무리들은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고 입구를 막은 다음에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 되어서, 다니엘의 살과 뼈는 다 찢기어서 사자가 먹어 버리고도 남았을 시간에 다리오 왕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자굴 입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서 있고 사자들은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다니엘을 꺼내 보니 상처 입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모함한 무리들과 그 가족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으니 이틀이 못되어 사자의 배설물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의한 권세는 며칠 가지 못합니다. 의인이 악인을 직접 죽이면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고 원수가 새끼를 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의인이 악인에게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길 때 악인은 자기의 죄를 인하여 스스로 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3)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다윗은 아직도 육신이 괴롭고 위태로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과 의논을 하면 마음의 근심이 커질 뿐이고 영혼은 캄캄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몸은 괴로워도 마음에 위로가 오고, 마음에 위로가 오니 영혼에 기쁨이 생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므로 생긴 기쁨을 가지고 찬송합니다. 다윗의 찬송이 네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영혼의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은 대개 입으로만 부르고 마는 경우가 많지만 다윗은 영혼으로 찬송합니다. 둘째, 온 마음으로 부릅니다. 영혼이 기뻐 찬미가 시작되고 다음에 전심으로 찬미하는 최고의 찬송입니다. 셋째, 모든 악기를 가지고 찬송합니다. 넷째, 시로써 찬송을 합니다.

일시적인 찬송이 아니라 부른 찬송을 글로 기록해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사중 찬송, 영혼과 마음과 모든 악기와 글로써 하나님 앞에 완전한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 찬송은 몸이 편안할 때 부른게 아닙니다. 십 황무지에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찾아 온다는 말을 듣고서 기도하고 나서 부른 찬송입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실력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을 영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기도하니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입니다. 다윗은 영혼이 기쁘고 마음이 기뻐서 입으로 찬송이 나오고 글로써 찬송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니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합니다. 뒤를 돌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잠깐만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서 간증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아무 해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받고 마음이 기뻐 시를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얼마나 확실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자신있는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괴롭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간증하기를 "여러 해를 도망다니는데 내 뼈가 하나도 안꺾어지고 손톱 하나 안 상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 그러니 낙희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은총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하라." 많은 사람에게 교훈도 하고 간증도 하면서 다윗은 시를 통해 찬미했습니다. 늠름한 찬송입니다.

다윗은 육신이 괴롭고 위태로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과 의논을 하면 마음의 근심이 커질 뿐이고 영혼은 캄캄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몸은 괴로워도 마음의 위로가 오고, 영혼에 기쁨이 생깁니다.

종교개혁과 우리의 신앙

김 찬 곤
(목사, 교구위원회, 제3교구 지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479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은 독일에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는 면죄부 판매에 대한 항의문인 95개조의 논제를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회당 정문에 붙인 날이었다. 이것으로 인하여 억눌려 있었던 독일 국민들의 분노는 일제히 폭발하였으며, 16세기 종교개혁이라는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한 날이 되었다. 종교개혁이 발생한 16세기는 그 시대의 양상으로 보아 격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었다. 이 세기를 가리켜 중세에서 근세로 이행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었다. 루터가 항의를 제기한 동기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내면적 체험의 신앙에 있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1. 종교개혁의 원인은 무엇인가

(1) 교회의 부패(교직 매매와 성적 타락)
(2) 교황의 세속화(교회의 교리적 탈선, 레오 10세의 면죄부 판매)
(3) 성직자들의 도덕적 타락
(4) 독일 국민의 종교적 순수성과 열정 등을 들 수 있다.

2. 종교개혁의 목적은 무엇인가

(1) '율법종교에서 복음적 종교로 만들 목적'
(2) '교권주의에서 참 자유주의로 발전시킬 목적'
(3) '의식적인 신앙에서 체험적 신앙으로 옮길 목적'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1) 오직 성경 2) 오직 은혜 3) 오직 믿음 4)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5) 만인 제사장주의 등을 내세우며 교리적 개혁운동을 일으켰다. 개혁자들은 말하기를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3. 종교개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혁명이 아닌 교회갱신운동인 것이다. 개신교회를 Reformed Church라 부른다. 이는 단순히 시대의 전통과 외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말하는 형태를 복원하는 것이다. 루터는 오직 진리를 밝히고 싶은 열정에서 면죄부 매매에 대한 신학적 토의를 제의한 것이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고 교회사의 이정표가 된 것이었다. 종교개혁은 어디까지나 종교의 부흥운동이었다. 루터의 말처럼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은 역사의 한 시점에서 종지부를 찍는 '한시적' 인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 잡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연속성을 갖는 것이다.

이에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며 개혁해야 할 문제들을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미완의 종교개혁이라는 말로 표현해야 좋을 것이다.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1) 종교개혁의 본질은 잃었던 성경을 다시 발견하였고, 덮여 있던 성경을 다시 열어 놓았던 것이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크리스천 신앙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고 교리의 척도로 삼았다. 이 성경만이 그리스도 교회의 최고 권위이며,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성경 외에는 구원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이다. 성경만이란 원리는, 복음만이란 의미이며, 복음만이란 말은 그리스도만이란 말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종교개혁의 본질은 은총의 재발견이었다. 천주교와 개혁교회의 근본차이는 은총만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인류의 구원은 완성된다. 인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이며, 결코 사람의 어떤 공로나 업적에 의한 것이 아니다. 구원이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한 업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우리의 것이 된다는 말이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시며, 그분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이시다. 우리는 얼마나 그 크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3) 종교개혁의 본질은 신앙의 재발견이었다. 종교개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유일한 수단이다. 신앙 외에는 여하한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었다. 사람은 아무 업적이나 공로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믿음으로 값없이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이런 개혁운동의 본질은 종교의 개혁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에 큰 변혁을 일으켜 인류 역사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인간 앞에 듣기 좋은 갱신, 개혁 따위의 구호를 남발하지 말고 조용한 내적 갱신부터 이루어 나가야 한다. 곧 내적인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성실성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 사상을 토대로 다시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알기 위해서 믿고, 믿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신앙생활이 요청되며 신앙의 생활화, 역사화가 다시 강조돼야 할 것이다.

참다운 개혁은
항상 나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내 자녀같이 사랑하는 새가족을 양육하면서

김 경 숙
(집사, 4-1교구, 호산나찬양대, 새가족부양육위원)

새가족의 얼굴을 볼 때마다 벅찬 기쁨과 감격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명의 새가족이 교회에 나올 때 천국에서는 잃었던 자녀를 다시 찾고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니 왠지 내 마음이 기쁩니다. 저의 기쁨과 소망과 자랑의 면류관은 새가족입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예쁘게 여기셔서 저를 새가족부에 오게 하신 일, 그동안 다섯명의 학생들을 만나 그들을 양육하고 관리했던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20대에서 70대의 다양한 새가족을 접하면서 때로는 부모님을 대하듯이 오빠, 언니, 동생을 대하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게 하셨고, 한편으로는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깨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대하게 하셨습니다.

주일마다 새가족부에 오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위원을 만나서 교제 나누는 것을 그처럼 좋아하고 낙으로 여기시면서 반갑게 나오시던 새가족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개근상을 타시겠다고 열심을 다해 출석하시면서 주일마다 질문을 하지 않는 날이 없으실 정도로 열심히 성경공부를 해왔던 70세가 넘으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모습은 저에게 큰 기쁨과 감격을 안겨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6개월 수료전에 성경 66권을 일독하셨고, 성경암송대회, 성경퀴즈대회, 찬송가부르기대회 등 모든 시간마다 젊은이 못지 않게 열심을 품으시고 참여하셨습니다. 그들을 양육하면서 오히려 내 자신이 그들의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양육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이 새가족부를 수료한 후 장년3부에서 변함없이 열심을 다하시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새가족들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며, 타성에 젖어 있는 나에게 새로운 활력을 넣어 주는 하나님의 귀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저는 새가족부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었고, 한 생명에 대한 귀중성도 마음깊이 되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전 4:15)는 바울의 고백이 이제는 피상적으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 부모가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겪듯이 새가족이 등록하여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의

> *새가족들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며, 타성에 젖어 있는 나에게 새로운 활력을 넣어 주는 하나님의 귀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저는 새가족부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었고, 한 생명에 대한 귀중성도 마음깊이 되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일꾼으로 쓰임받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가능함을 깊이 느낍니다. 또한 생명이 교회에 나와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새롭게 깨닫습니다.

불신가정에서 나온 한 형제는 가정의 핍박과 미움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잃어 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교회를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핍박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 식구들의 핍박인데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교회 나오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형제의 아픔과 고통은 저에게 깊은 동감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불신가정에서 외롭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형제에게 과거의 그 경험을 되새기면서 여러 가지 위로와 도전을 주며, 그를 위해 지금도 더욱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형제가 한 알의 믿음의 불씨가 되어 그 가정을 전부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새가족을 양육하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그들의 고통은 나의 것으로 점점 깊이 느껴집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새가족과 제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힘쓰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이 저에게 새롭게 4명의 형제자매들과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앞으로 함께 할 날들을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양육위원이 되고자 기도합니다.

토막소식

▶ 유치부에서는 오는 11월 10일 성경이야기대회를 실시한다.

▶ 청년2부에서는 오는 11월 3일 초청전도대회를 실시한다.

▶ 장년3부에서는 오는 11월 24일 성경퀴즈대회를 실시한다. 범위는 로마서 전장과 잠언 1~11장이다.

▶ 소망부에서는 오늘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한다. 범위는 빌립보서 3장.

▶ 새가족부에서는 오는 11월 10일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한다. 범위는 50세 이상 새가족은 요한일서 5장 1-10절이고, 50세 이하 새가족은 요한일서 5장 1-23절이다.

▶ 가브리엘찬양대에서는 오는 11월 17일을 총동원주일로 정하고 나오지 않는 대원 중 1명씩을 대상자로 삼아 기도와 전화 심방을 하며 찬양대에 나와 함께 봉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종교개혁 특강

오늘 청년2부 집회 시간에

청년2부에서는 오늘(10월 27일,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교육관 414호 청년2부실에서 김광채 교수(개혁신학원 역사학 교수)의 '종교개혁의 의의와 우리의 과제' 라는 제목의 특강을 실시한다.

관심있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5교구 · 7교구

오늘 찬양대회 실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5교구(교구장 박승준 장로), 7교구(교구장 마성락 장로)에서는 오늘 교구모임 시간에 각각 구역별, 지역별 찬양대회를 하며 성도간의 화합과 친교의 시간을 마련한다.

특히 5교구는 2년간 교구 모임시 각 구역별, 지역별 찬양대회를 실시해서 교구 식구들의 교제를 다져왔었다. 또한 7교구는 찬양대회와 함께 간증 및 지역별 기도 제목 발표 및 기도 등의 시간을 겸해서 갖는다.

장소는 5교구는 아멘홀이고, 7교구는 갈릴리홀에서 하게 된다.

한편 지난 주일 제8교구 가을잔치에도 많은 교구 식구들과 새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만나홀에서 성대하게 치뤄졌다.

경찰의 날 기념예배 충현실업인전도회(회장 임무천 장로)는 지난 10월 17일 오후 6시 30분 경찰청교회에서 경찰의 날 기념예배를 주관하여 드렸다. 이날 김희수 목사의 설교와 오정헌 장로의 기도에 이어 권사회 중창단의 특순으로 은혜 중에 예배를 드렸다. 충현실업인전도회에서는 금년도 사업 중 경찰청을 지원키로 하고 지난 4월 3일 부활절예배, 6월 18일 경찰교회 설립기념예배에 이어 금번 경찰의 날 기념예배를 드린 것이다.

그동안 충현실업인전도회에서는 나라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경찰관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기도와 물질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경찰의 복음화를 위하여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금주 주부교양강좌

10월 31일(목) 오전 10 ~ 12시, 충현복지관

'자기 관리' — 이순희 원장

금주의 주부교양강좌는 문화일보에 미용칼럼을 집필하고 이순희 스킨헤어 살롱을 경영하는 이순희 원장의 '자기 관리' —자신을 가꾸고 표현하는 법에 대해 배우게 된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수리남 안석렬 선교사 ▶

본격적인 인디언 선교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시간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계획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선교보고를 드립니다.

인디언 선교를 위한 허가서를 받아

5월 23일 이 나라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는데 25일 토요일에 인디언 추장으로부터 26일에 마따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인즉 모든 대표자들이 모여 우리 선교부가 그곳에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일 성령강림주일에 추장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추장이 허가서는 주지 않고 젊은 대표들은 찬성을 하는데 나이 많은 대표들은 천주교의 영향으로 반대를 해서 며칠 더 설득을 해야 하므로 29일에는 꼭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주일학교예배만 드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5월 29일 아침 일찍 마따에 가서 추장을 만났습니다.

2월 2일에 마따를 선교후보지로 생각하고 방문한 때부터 3개월 하고 1주일이 지나 정식으로 인디언선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따의 인디언들은 아루왁이라는 족속으로 수리남에 3-4군데에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원만 충분하면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따의 교회당을 보수

추장이 다음에 출마하기 위해서인지 선거에 열심이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우리를 부른 것은 자기 족속들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여는 데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에 진료소와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반정부군이 인디언촌을 점령해 다스릴 때 이 건물이 많이 부서졌기 때문에 보수해야 진료할 수 있는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에 저희에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추장과 대화를 할 때 그 건물을 보수해서 진료소 자리는 진료소로 사용하고, 유치원 자리는 교회로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5월 29일 허가서를 주면서 추장이 묻기를 언제 공사가 시작되느냐고 묻기에 2-3주 안에 다 끝날 것이라고 했더니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에게 좋은 일꾼을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한 형제는 가이아나 사람으로 믿음이 진실하고 한인교회 마무리 공사 때부터 오랫동안 함께 지낸 좋은 믿음의 형제입니다. 로한 형제가 일꾼들과 함께 인디언촌에 들어가서 숙식하면서 6월 4일부터 15일까지 거의 두 주간 동안 헌신적으로 수고하여 대부분의 일을 마쳐 주었습니다. 좋은 일꾼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물질도 보내 주셨습니다. 94년 1월, 안식년 기간에 파라과이를 방문했을 때 한 집사님가정이 인디언선교를 위해 특별헌금을 하셨던 것 중에서 그동안 크바말라사무투의 인디언들을 위해 사용하고 남았던 것과 파송교회인 충현교회를 비롯해 협력해 주시는 여러 교회를 통해 채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다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직 일꾼문제로 전선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데 9월까지는 다 끝날 것으로 믿습니다.

부러진 십자가

이 선교편지를 읽으시는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분이 부러진 십자가를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함을 깨달은 마귀의 반격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계속 기도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저희가 새로 보수한 교회 지붕에 십자가를 달기로 하고 아주 강한 나무로 높이 2미터짜리 십자가를 만들어 달고서 6월 15일에 일꾼들과 파라마리보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주일 낮에 현지인 교회의 예배를 마치고 인디언 마촌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려고 가보니 십자가가 부러져서 한 부분은 땅에 떨어져 있고, 나머지 한부분은 없어졌습니다. 알아보니 청년 중 하를, 케넷, 왈도 이상 3명이 부러뜨리고 한 부분을 가져갔다고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일꾼들과 함께 추장을 만났습니다. 추장은 모르는 것같이 하면서 저에게 '십자가를 교회당 안에 설치하면 어떠냐? 나중에 교인이 많아진 후에 십자가를 달면 어떠냐? 라고 말하기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표로 십자가를 예배처소 위에다 달기에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대답하면서 '오늘 일꾼들이 다시 십자가를 만들어 달텐데 이것을 부러뜨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지금까지 교회지붕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든든히 서 있는 십자가처럼 우리의 믿음도 든든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십자가를 부러뜨렸던 세 청년이 귀한 일꾼으로 변화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 차량을 위해

교회보수공사를 하던 기간에 비가 많이 내려 낮은 도로에 물이 약 90cm까지 차는 바람에 차 엔진에 물이 들어갔습니다. 공장까지 약 35km를 끌어왔을 뿐 아니라 부속을 구할 수가 없어 중고품을 새것 가격으로 사서 끼웠는데 기능도 약해졌고, 도시형 차량을 가지고 비포장길을 달려서인지 $2000 가까이 들었는데도 차량 검사에 여러번 퇴짜를 받고 근 한달만에 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속에 있는 인디언촌을 방문하려면 4륜구동의 차량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픽업형 차량으로 운전대도 오른쪽에 있고, 차체도 높은 도요다 HILUX가 세금 포함해 $25500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선교에 필요한 차량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호에 계속〉